

모습의 ‘겠’과 바탕의 ‘-을 것’

김 규 철*

I. 들머리

아직까지 국어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해 온 것 중의 하나는 언어 표현의 길이(또는 크기) (length(size) of linguistic expression)다. 서로 비슷한(엄격히 말해 동일하지는 않지만) 의미와 기능을 가진 표현형식이 쌍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 쌍의 하나는 긴형(long form=LF)으로, 다른 하나는 짧은형(short form=SF)¹⁾로 표현되고 있다.²⁾

(1)	SF	LF
a. 사동화	죽이다	죽게 하다
b. 명사화	앎	알기
c. 보충법	편찮으시다	아프다
d. 짐작	‘겠’	‘-을 것’

본고의 목적은 (1)d에 한정하여, 길이가 다른 두 형식이 어떤 지시내용(meaning, referent, coded, signifié, signatum, connotation, concept)³⁾

* 육사

- 1) 본고에서는 긴형과 짧은형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완전형과 축약형에서 전자는 LF으로, 후자는 SF으로 본다. 어휘에서도 ‘편찮으시다’는 LF로, ‘아프다’는 SF으로, 격어미의 생략형은 SF로, 완전형은 LF로 분류한다.
- 2) 음성상징론에서 구강이나 후두강의 크고 작음이 지시내용과 iconic 관계에 있다. 즉 발음시 후두강이 큰 모음은 지시내용도 크다는 것이다. Grecerson(1987)은 wide pharyngeal cavity는 augmentative를 나타내고 narrow pharyngeal cavity는 diminutive를 나타낸다고 한다.
- 3) 형식과 내용의 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둘 사이의 근본적인 관

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치자심리학에서 말하는 모습(figure=F)과 바탕(ground=G)⁴⁾의 이론에 기초하여 밝혀 내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짧은형인 '겠'은 Fig를 긴형인 '-을 것'은 G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자는 F의 특성 중에서 새로운 정보(new information=NI)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후자는 G의 특성 중에서 주어진 정보(given information=GI)⁵⁾와 관련됨을 살펴 보고자 한다.

'겠'과 '-을 것'⁶⁾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난 듯하지만 학문의 끝이란 그리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되뇌일 필요가 있다. 여러 문법서를 제외하더라도 이정민(1973), 신창준(1975), 이기용(1978), 서정수(1978), 성기철(1979), 임홍빈(1980), 김차균(1981), 이남순(1981), 안명철(1983), 성광수(1984),

제에는 변함이 없다.

<u>form</u>	<u>form</u>	<u>code</u>	<u>structure</u>	<u>form</u>	<u>form</u>
<u>meaning</u> , referent,	<u>coded</u> ,	<u>signan-</u>	<u>function</u> , connotation,	<u>concept</u> ,	
<u>signatum</u> ,	<u>code</u>	<u>signifier</u>			

- 4) 모습과 바탕의 이론은 Wallace(1982)(이기동 편지, 1986: 187~209)의 설명에 따랐다. Givon(1970), Gregerson(1987)에서도 figure와 ground를 원용하고 있다.
- 5) given/new information의 구별은 Chafe(1974)를 원용했다. 학자마다 달리 경의하며 명칭도 다양하지만, 우리의 의식세계를 중시하는 본고에서는 Chafe가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양한 명칭을 보면, old/new, shared/unshared, known/new, presupposition/focus 등이 있다. Prince(1979)와 Ariel(1985)는 given/new information의 가능을 자세히 논하고 있다. old information이 given information과 다른점은 Chafe(1974: 112)의 주 2에서 설명하고 있다. Chafe는 new를 not given의 뜻으로 사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 6) '겠'에는 별다른 표기상의 의견이 없으나 '-을 것'에는 차이를 보인다. 성기철(1979: 110)에서는 '-을 것이-'를 한 단위로 취급했으며, 이기용(1978)은 '을 것'으로, 서정수는 'ㄹ 것'으로 쓰면서 '~(으)ㄹ 것이'가 정확한 표기라고 하며 각주 1에서 관형사형 어미 '(으)ㄹ'에 '것'만이 이어진 풀이 아니라 '이(나)'까지 연결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남순(1981)은 'ㄹ 것', 임홍빈(1980)은 '-ㄹ 것'을 택하고 있다. 김차균은 특이하게 「을」을 제시하고 있으며(1981: 101), 장경희(1985)도 'ㄹ'에 초점을 두어 관형절의 {ㄹ}과 관용구 관형절의 '-ㄹ 것이다'를 구별하고 있다.

장경희(1985), 이선경(1986) 등이 이 문제에 대하여 다양하게 접근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너무나 다양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어 ‘겠’과 ‘-을 것’의 정체를 얼른 파악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F-G의 구별에 입각하여 본다면, 이들의 다양한 결과를 하나로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찾아 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결과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이것들을 포용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F-G와 긴형·짧은형의 관계를 규명하여 ‘겠’과 ‘-을 것’의 성격을 밝혀 보겠다.

이해를 돋기 위해 Ⅱ에서는 F-G를 간단히 살펴보고, Ⅲ에서는 언어 표현과 인식양상(심리, 인지, 개념 등) 사이에는 iconic 관계가 있음을 논의하겠다. Ⅳ에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하여 ‘겠’과 ‘-을 것’의 차이를 밝히겠다.

II. 모습과 바탕

F와 G의 분석적 구분은 제법 오래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20세기 초 형태심리학자들까지 갈 수 있으며, 아직까지도 심리학 이론에서 큰 주

7) 이들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겠	-을 것
신창순	객관적 자료가 요구됨	객관적 자료가 불필요함
이정민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이기용	강한 짐작	약한 짐작
서정수	객관적 근거가 필요함	객관적 근거가 불필요함
성기철	주관성	객관성
임홍빈	객관적 근거가 불필요함	객관적 근거가 필요함
김차균	현재경험	과거경험
안명철	대상성	무대상성
장경희	발화시 상황판단	발화이전의 상황판단
성광수	현재의 상황근거	추정사건자체
이선경	결과짐작	불확실성
	주관적 판단, 직접표현	객관적 판단, 간접표현
	언술장면과 인접	언술장면과 단절

목을 받고 있다. F와 G의 구별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를 먼저 보자. 넓은 운동장에 토끼 한마리가 뛰놀고 있다고 하자. 이때에 인간의 지각세계에 들어오는 운동장과 토끼는 서로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즉 넓은 운동장은 G로, 토끼는 F로 받아 들여 진다고 할 수 있다.

F-G의 구별은 비시각적인 언어현상에 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이 언어학계의 일각에서 강력하게 논의되어 왔다. 예를들면 Givon(1979)은 긍정과 부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부정사건의 존재를 F-G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Wallace(1982) (이기동, 1986 : 187~209)도 언어분석의 여러 분야에서, 예로 언어법주와 이들 법주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데에 F-G의 구별을 매우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다.

언어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F와 G의 특성을 다음 도표에서 제시해 보겠다. 이들 중의 다수는 ‘겠’과 ‘을 것’의 논의에 직접 이용될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모습 (figure)	바탕 (ground)
유형, 유한	무형, 무한
작은 것	큰 것
근거리	원거리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직접성	간접성
단수	복수
새정보	주어진 정보
선택적 폐쇄성	선택의 개방성
대상이 있음	대상이 없음
현재	비현재
확실성	비확실성
친숙성	비친숙성

위의 도표를 보면 F는 작고, 적고, 좁고, 가까운 것을 포함하고, G는 크고, 많고, 넓고, 먼 것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에서 논의될 언어표현의 질이와 인식양상과의 iconic 관계에 주목하는 우리는 F는 짧은형과, G는 긴형의 언어표현과 대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III. 언어표현과 인식양상(인지, 심리, 개념 등)의 iconic 관계

앞에서 우리는 언어표현의 질이에 주목하여 '겠'과 '-을 것'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표현의 질이에 관심을 두는 근본적인 이유는 언어는 자의적이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비자의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자의적인 면을 고려할 때 언어표현과 인지, 심리, 개념의 관계는 iconic 하기 때문이다.⁸⁾ 앞면의 도표에서 F는 짧은형으로, G는 긴형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겠'은 F와, '-을 것'은 G와 관련되는 iconic 관계가 있다.

먼저 비자의적인 iconic 관계를 살펴보자. 언어는 형식(form)과 내용(meaning)의 관계가 자의적이라는 것은 도전할 수 없는 정설로 받아들여져 내려 왔다. 따라서 필연성이 예측되는 의성어까지도 자의적이라고 Hockett(1958 : 278)는 주장한다. 그는 영어의 ding-dong 과 독어의 bim-bam 을 예로 제시하였다.⁹⁾ 그러나 이런 언어의 자의성은 최근 많은 학자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 Haiman(1980, 1983)은 말하기를, 언어는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보다 멀자의적이며 언어표현과 개념(내용)의 관계는 iconic 함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Gregerson(1987), Bolinger(1982, 1985), Givon(1980, 1985), Bybee(1985) 등도 표현형식과 지시내용의 관계는 자의적이라기 보다는 iconic 관계임을 역설하고 있다. 즉 단순하고 작은 개념은 짧은형으로, 복잡하고 큰 개념은 긴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일례로 단수형과 복수형을 보자.

-
- 8) Givon(1985 : 188)에서는 non-arbitrariness 를 code(struture)와 meaning (function)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자의적이란 iconic relationship 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Haiman(1980), Bolinger(1985), Bybee(1985)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iconicity 도 동류로 볼 수 있다.
 - 9) 이런 티의 의성어에서 자의성이 아닌 비자의성을 언어 보편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학자중의 한 사람은 Ross(1982 : 281)다. 그는 많은 언어를 제시하여 'Here/There'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전설 고모음 i 가 먼저 오는 것은 언어 보편적임을 지적했다. Ross(1982 : 277)에서 제시된 순서는 i u e o æ a ㅇ이다. here/there=i/e, bim/bam=i/a, 이것/저것=i/a, 성승/생승=i/æ 등 많은 예가 보인다. Ross(1975)에서는 이것을 world order 로 보고 있다.

우리가 열핏 생각해 봐도 단수가 복수보다 개념적으로 단순하며 작게 인식된다. 따라서 복수형이 단수형보다 긴형식을 취할 것이 예견된다. 이 예견이 틀리지 않음을 Greenberg(1966 : 94)에서 증명하고 있다. 즉 복수형이 단일 형태소이며, 이 복수를 나타내는 단일 형태소에 단수를 나타내는 어떤 형태소를 첨가해서 단수형을 만드는 언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단수에 복수표지 형태소를 첨가해서 복수형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런 iconic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a. 단수 N- ϕ (사람+ ϕ) : 짧은형
- b. 복수 N+x (사람+들) : 긴형

또다른 예는 흔히 논의되는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이다. 국어에는 -이, -히, -기, -리 등에 의한 접사사동과, '-게 하다'에 의한 통사적 사동이 있다. 길이에 관심을 두는 우리는 인식양상의 차이로 두가지 사동을 설명할 수 있다.

- (2) a. 철수는 새를 죽였다.
- b. 철수는 새를 죽게 했다.

(2)a에서는 사동자인 철수와 피사동자인 새와는 직접적인 접촉이 상상되며, 철수의 살상행위와 새의 죽음은 동시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앞에서 제시한 F-G의 도표에 의하면 접속성은 F에 해당되며 또 SF으로 표현된다. 반면에 (2)b는 (2)a와는 달리 간접성, 즉 추운 데에 놓았거나, 모이를 주지 않아서 새가 죽었음을 말하고 있다. 직접성과 간접성의 문제는 다음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a. *철수는 새를 죽였지만 죽지 않았다.
- b. 철수는 새를 죽게 했지만 죽지 않았다.

(3)a가 비문으로 이해되는 것은 철수의 살상행위가 새의 직접 가해져 그새는 반드시 죽어야 논리적으로 성립이 된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비문이 되고 말았다. (3)b는 살상행위가 간접적이기 때문에, 죽게 했지만 안죽을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표현의 길이에 놓어야 한다. '죽이다'

와 '죽게 하다'를 비교할 때 전자가 주자보다 짧다는 사실이다. 이 절이의 차이와 인식양상과의 iconic 관계를 손호민(1978 : 144)에서 보자. 손교수는 짧은형의 '죽였다'는 죽음을 의성시킨다는 직접성의 뜻이고, '죽게 했다'는 죽음의 원인을 야기시키는 것만을 서술하는 간접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동문의 절이와 직접성과의 상호관련성(iconic 관계)을 말해 주고 있다. 즉 직접사동(proximate causation, direct causation)은 사동자와 피사동자의 거리가 가깝게 인지되는 반면, 간접사동(mediate causation, indirect causation)은 둘 사이의 거리가 멀리 인지된다는 것이다.¹⁰⁾ 따라서 다음과 같이 iconic 관계를 요약할 수 있다.

절 사 사 동 :	직접사동 :	직접성 :	짧은형
통사적사동 :	간접사동 :	간접성 :	긴 형

이런 형식과 의미의 iconic 관계는 국어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본고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¹¹⁾

IV. '겠'과 '-을 것'

4. 1. 근거자료의 객관성과 확실성

객관적 자료의 있고 없음이 '겠'과 '-을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됨을 신창순(1972), 이기용(1977, 1978), 서정수(1978), 성광수(1984) 등에서 논의되고 있다. 객관적 자료의 유무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이 이남준(1981), 안명철(1983), 장경희(1985)에서 이미 밝혀졌지만 이해를 돋기 위해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4) a. 자식이 대학에 합격했으니 그는 걱정이 없겠다.

10) causer와 causee의 거리를 중시할 때 proximate/mediate가 더 적절한 명칭으로 느껴진다.

11) 박남식(1980)에서도 거리(distance)가 가까우면 짧은형으로 나타낼을 피력하고 있다. 비록 iconic 관계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논의와 흡사함을 느낀다. 그의 예를 보면,

i) She is with ϕ child

ii) She is with a child

i 은 가깝고 직접성이 있는 임신을 뜻하지만 ii는 아이와 여자사이에 거리가 있는 아이를 동반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우리는 ii가 진형이고 i은 짧은형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b. *자식이 대학에 합격했으니 그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4)는 ‘대학합격’이라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겠’과 공기할 수 있지만 ‘-을 것’과는 어울릴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 “‘겠’에는 사실여부 또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을 것’의 경우는 그런 증거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기용(1977 : 28)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은 이런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5) a. ?일기예보에 따르면 비가 오겠다.

b. 일기예보에 따르면 비가 올 것이다.

(4)와는 달리 (5)에서는 ‘일기예보’라는 객관적 판단근거가 ‘-을 것’과 같이 쓰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객관성과 확실성의 관계를 문제삼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근거가 반드시 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겠’과 ‘-을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불확실한 것을 나타내는 ‘짐작’을 의미한다¹²⁾는 주장을 받아 들인다면, 증거자료가 확실한지 아닌지도 문제되어야 할 것이다. (5)에서 제시된 ‘일기예보’가 객관적 근거지만 100% 확실성을 보이지 않음은 우리의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4)의 ‘대학합격’은 100% 확실성을 보인다.

(4)의 경우와는 달리, 100%의 확실성을 보이는 증거자료가 ‘-을 것’과 쓰임을 서정주(1978 : 102) 제시하여 이기용(1978)과 반대되는 주장 을 하고 있다.

(6) a. 모든 동물은 죽는다.

b. 개는 동물이다.

c. 그러므로 개는 죽는다.

d. 그러므로 개는 죽을 것이다.

e. *그러므로 개는 죽겠다.

이상으로 판단근지의 객관성이나 확실성이 ‘겠’과 ‘-을 것’의 구별에 이용될 수 없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판단근기에 주목했음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판단근거자료가 없다면 짐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뒤에서 판단근지가 NI냐 아니면 GI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겠다.

12) 임홍빈(1980 : 164)에서는 ‘겠’은 추량이 없고 대상성이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4. 2. 시간성¹³⁾의 문제

시간성의 문제는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판단결과로서의 사건이 일어 난(또는 일어 날) 시간이고, 둘째는 판단 근거자료가 이루어진 시간이다.

먼저 첫째 것부터 살펴보기 위해 이정민(1975: 303)의 설명을 보자.

- (7) a. 3월이 오면 진달래가 필 것이다.
- b. 곧 진달래가 피겠다.

이 교수는 (7)a가 (7)b보다 좀더 초연하고 멀리 떨어진 미래성을 나타낸다고 한다. '진달래가 피다'라는 결과사건이 (7)a에서는 더 먼 미래에 일어 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정수(1978: 96)는 이런 것은 '3월이 오면'과 '곧'이라는 부사어의 차이에서 느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곧'을 (7)a에 넣어 보면 이런 초연성이나 먼 미래성이 사라진다는 것이다.¹⁴⁾ 그러나 편자의 견해는 3월이 왔을 때의 '곧'과 현재의 '곧'과는 의미차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먼 '곧'과 가까운 '곧'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¹⁵⁾

'겠'을 현장근거의 기준로 파악하는 안명철(1983: 72)은 먼 과거의 사건이나 미래의 사건 또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세계의 사건을 '-을 것'으로 표현됨을 역설하고 있다. 그의 예를 보자.

- (8) a. 2만년 뒤에는 지구는 아마 망할 것이다.
- b. 구석기인들은 불을 사용했을 것이다.
- c. 우주 건너편에도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다.

이정민(1975)이나 안명철(1983)은 모두 추정결과로서의 사건이 일어

13) 여기서의 시간성이 시제의 문제는 아니다. '겠'이 시제를 나타낼 수 없음은 정설로 받아들여진지 오래다.

또한 시간성의 문제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현실세계로서의 시간 질이와 인식상(심리적)의 시간 질이는 같지 않다는 것이다. 예로, 수술실에 들어간 환자의 보호자는 10분의 수술시간이 한 시간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14) '곧'이 '오다'나 '피다'를 수식할 수 있어 어느 것을 수식하는 것으로 봤는지 확실치 않으나, 어느 것을 수식하든 미래성을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5) '기다려 곧 갈께'에서 청자는 '곧'을 '당장'으로 해석하지만 화자는 '잠시 후'를 얘기할 수 있다.

난 또는 일어날 시간성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게 한 근거자료에 더 주목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즉 근거자료가 NI냐 GI냐의 문제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다.

‘겠’과 ‘-을 것’이 무의지 주어와 관련될 때 미래성을 떤다¹⁶⁾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성의 문제에 주목하여 ‘겠’과 ‘-을 것’을 본다면 우리의 해석논리인 F-G 와 일치함을 보게 된다. 즉 인식상 거리가 먼 미래는 G로 이해되며, 가까운 미래는 F로 이해된다. 표현질이와 시내용의 iconic 관계에 주목하는 우리는 짧은형인 ‘겠’은 가까운 미래의 F를, 긴형인 ‘-을 것’은 먼 미래의 G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는 판단근거가 일어난 시간의 문제로 이는 현재경험이나 과거경험이나의 문제다. ‘겠’과 ‘-을 것’이 경험의 시간성과 관련되고 있음을 성기철(1979), 김차균(1981), 이선경(1986)에서 제시되고 있다. ‘겠’은 현재의 경험, 또는 발화순간의 상황과 관련되며, ‘-을 것’은 과거의 경험, 발화이전의 상황판단을 기초로 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F-G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근거자료를 경험한 시간과 판단결과를 발화한 시간과의 거리가 길으나 짧으나의 문제로 짧으면 ‘겠’으로, 길면 ‘-을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

- (9) a. 10분후면 수업이 끝나겠다.
- b. 10분후면 수업이 끝날 것이다.

(9)a는 화자가 실제 수업하는 현상에서 관찰하고 판단한 결과, 즉 현재 경험에 기초하여 말한 것이다. 즉 교수의 수업진도의 빠르기와 나머지 수업분량을 비교해 볼 때 10분후면 충분히 끝날 수 있음을 짐작하고 말하는 경우다. 반면 (9)b는 수업내용이나 진행속도를 전혀 모르지만, 교수나 제3자로부터 또는 시간계획표에 의해 끝날 예정시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계를 보니 10분이 남았을 때 잘 어울리는 문장이다. 그러나 성기철(1979)의 주장과는 달리 경험의 시간성이 구별 기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¹⁷⁾

16) 임홍빈(1980:153)의 논의를 참고하기 바람. 일본 학자들은 ‘겠’의 미래성을 2차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17) 이남준(1980), 안명철(1983), 장경희(1985)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다. 과거

이 남준(1980 : 188~90)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경험의 시간적 차이는 '겠'과 '-을 것'의 구별기준이 되지 않는다.

- (10) a. 10년 전에는 꼬마였는데 지금은 많이 컷겠다.
b. 10년 전에는 꼬마였는데 지금은 많이 컷을 것이다.

'10년 전의 꼬마'가 (9)a에서는 현재 경험이고 (9)b에서는 과거 경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청자의 판단을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관심을 두는 이 남준(1980)은 다음의 예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 (11) a. 영희가 3일을 끊었다니, 배가 매우 고프겠다.
b. 영희가 3일을 끊었다니, 배가 매우 고풀 것이다.

(11)은 이 남준(1980 : 190)의 것으로 객관적 근거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문제삼기 위해 제시하고 있다. (11)a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자기 혼자만의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청자의 판단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했다. (11)b에서, 화자는 청자가 내린 판단과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남준(1980)은 '겠'은 청자나 제 3자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화자의 배제적(exclusive) 판단을 나타내며, '-을 것'은 청자나 제 3자의 판단도 배제하지 않는 화자의 포함적(inclusive) 판단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필자가 밝히려는—새 정보(new information)에 근거한 '겠'과 주어진 정보(given information)에 기초한 '-을 것'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부분적으로 다름을 뒤에서 논의하겠다. 다만 여기서는 이 남준(1980)은 추정한 결과에 주목했음을 지적해 두겠다.

4. 3. 새정보와 주어진 정보

지금까지 '겠'과 '-을 것'의 논의는 두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짐작을 가능하게 한 증거자료에 초점을 둔 것과, 둘째는 짐작의 결과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기용(1978), 서정수(1978), 성기철(1979), 김차균(1981), 성광수(1984) 등은 전자에 속하고 이 남준(1981), 안명철(1983), 장경희(1985)는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객관적 증거자료의 유무, 현재경험과 과거경험

경험에서도 '겠'이 쓰이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발화순간의 판단과 발화이전의 판단,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배제적 판단과 포함적 판단, 현장적 근거의 유무, 등등은 ‘겠’과 ‘-을 것’을 완벽하게 구별해 내는 데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앞에서 우리는 ‘겠’과 ‘-을 것’의 논의에서는 짐작의 결과보다는 짐작을 가능하게 한 증거자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겠’과 ‘-을 것’의 구별기준의 새로운 대안으로 새정보(NI)와 주어진 정보(GI)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정보는 다양한 명칭¹⁸⁾이 있고, 또 정의도 다르게 내리고 있어 어떤 것이 타당한가는 더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본고의 영역을 벗어남으로 후일로 미루겠다. 언어 표현이 인식양상(인지, 심리, 개념 등)과 iconic 관계에 있음을 중시하는 우리로서는 Chafe(1974)의 견해를 원용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먼저 Chafe(1974 : 112)의 NI와 GI의 설명을 보자.

대화중 어느 순간이든 화자는 청자의 의식속에도 무엇이 들어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화자는 청자가 무엇을 의식하고 있나를 가정해서 자신의 정보를 전해야 한다. 화자가 말하는 모든 문장은 주어진 정보와 새정보의 혼합이다. 여기서 주어진 정보란 화자가 청자의 의식속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하며, 반면에 새정보란 청자의 의식속에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혼합체, 즉 주어진 정보와 새정보를 소리로 전환할 때 화자는 둘을 똑같은 방법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위 인용문에서 2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머리 속에 있다’는 가정’이라 귀질이다. 실제로는 없을지 몰라도 청자의 머리속에 화자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가 들어 있다는 가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둘째는 새정보와 주어진 정보를 달리 취급한다는 것이다.¹⁹⁾ 필자는 이 다르게 취급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표현질이의 차이’를 추가하고자 한다.

Chafe(1974 : 112)에서 과거 자신의 주장였던 old/new의 구별을 수정하며 화자의 가정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18) 주 5 참조.

19) Chafe(1974)에서는 new information은 high pitch로 given information은 low pitch로 나타남을 피력했다.

‘겠’과 ‘-을 것’에서도 pitch가 다른 것 같다. ‘겠’에 high pitch가 높이며 ‘-을 것’에는 low pitch가 높인다.

새정보는 청자의 기억에 없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발화시에 청자의 의식속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정보다. 반대로 주어진 정보는 이미 청자가 아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식속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²⁰⁾

Chafe는 청자(addressee) 중심의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어 '겠'과 '-을 것'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나타내는 '짐작'은 화자 자신의 것이지 청자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자의 처지에서의 정보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새정보 : 화자가 새롭게 알게된 정보나, 또는 청자의 의식속에 없다고 가정한 정보

주어진 정보 : 화자와 청자에게 이미 존재하는 정보나, 또는 청자의 의식속에 있다고 가정한 정보

위와 같이 정의할 때 NI는 F에, GI는 G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산술적 계산을 염두에 둘 때, GI는 화자와 청자(때로는 다수의 청자)의 의식, 즉 다수의 의식과 관련되고, NI는 화자 한사람의 의식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NI : GI = 단수 : 복수'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겠'은 NI와, '-을 것'은 GI와 관련됨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NI와 GI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현재경험과 과거경험도 '겠'과 '-을 것'의 구별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현재경험이지만 청자의 머리속에 있으리라고 가정했다면(간혹 어긋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것은 GI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경험이라 할지라도 청자의 머리속에 없다고 가정했으면 NI로 취급된다. 따라서 성기철(1979)의 현재·과거경험이나, 김차균(1981)의 활화시·발화이전의 상황근거나, 이선경(1986)의 언술장면의 인접이나 단절은 우리의 NI와 GI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²¹⁾ 과거경험을 기초로 한 짐작일지라도 NI로 취급시

20) Conrad 와 Rips(1986 : 255)에서는 given information을 미리 언급된 또는 전제된 것으로 보고 있어 Chafe의 old information과는 일치하지만 Chafe의 given information과는 차이를 보인다.

21) 성기철(1979)의 과거경험은 given information이 아니라 old 또는 known information으로 해석된다.

는 ‘겠’이 사용되고 있다.

- (12) a. 어제 문병갔었는데 그 사람 죽겠더라
 b. *어제 문병갔었는데 그 사람 죽을 것이다.

어제 문병간 것은 확실히 과거 경험이지만 ‘-을 것’이 아니라 ‘겠’이 쓰인 것은 문병간 것을 화자는 NI로 취급했으며, 청자의 머리속에는 화자가 문병 가서 환자를 관찰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NI와 GI는 근거자료의 객관성이나 확실성을 문제삼고 있지 않다. 다만 어떤 근거가 되는 정보가 주어졌느냐 아니냐가 중요 관심사다. 이런 의도에서 이기용(1978)과 서정수(1978)의 주장도 우리의 NI·GI에 입각한 논의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실성이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도 화자에 따라서 GI나 NI로 얼마든지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남준(1980)의 배제적 판단과 포괄적 판단도 우리의 NI와 GI와는 차이를 보인다. NI와 GI는 판단의 근거자료를 문제삼고 있지만 배제적·포괄적 판단은 판단의 근거자료가 아니라 판단결과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이남준의 판단결과는 짐작 또는 추측한 결과로서의 사건을 의미하는 듯하다).

- (13) a. 철수에게는 순희가 소중하겠다.
 b. 철수에게는 순희가 소중할 것이다.

- (14) a. *너도 잘 알고 있지만, 철수에게는 순희가 소중하겠다.
 b. 너도 잘 알고 있지만, 철수에게는 순희가 소중한 것이다.

위의 예는 이남준(1980 : 192)에서 뽑은 것인데 그의 설명을 보자.

(22)에서 a와 b의 차이는 (23)에서 잘 나타난다. (23)은 적어도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도 순희가 철수에게 소중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다. 다시 말하면 화자의 판단은 청자의 판단과 어긋나지 않음으로 화자의 판단이 청자의 판단까지도 포함하는 경우이다. 이때 ‘겠’이 쓰인 (23)a는 어색하다. 반면 ‘근 것’이 쓰인 (23)b는 자연스럽다. ((22)와 (23)은 본고의 (13)과 (14)임)

위 설명에서 다소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은 판단결과의 동일성인데, 어떻게 청자의 판단을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따라서 판단의 결과보다는 그런 판단을 가능하게 한 증거자료가 같은지 아닌지를 문제 삼아야 하리라 생각된다. (14)에서 문제되는 것은 철수와 순이에 대하여 너도 잘 알고 있고 화자도 잘 알고 있는 그 무엇인 증거자료다. 즉, 철수가 순희를 지극히 사랑한다든가, 또는 순희가 철수에게 어떤 큰 도움을 주었다든가 하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NI와 GI에 입각해서 보면 (14)에서 '너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은 GI이지 NI가 아니다. 따라서 G에 해당되는 GI에 기초한 짐작이기 때문에 진형인 '-을 것'이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이다.

- (15) a. *지구는 내일도 둘겠다.
- b. 지구는 내일도 둘 것이다.

(15)a는 어색하지만 (15)b는 자연스럽다. (15)b가 자연스러운 것은 지금까지의 화자나 청자의 경험에서 '지구는 돈다'는 근거자료는 동일하며 따라서 GI로 인식된다. GI에 기초한 짐작은 '-을 것'으로 표현됨은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공교롭게도 이 경험은 성기철(1979)의 과거경험과 일치되고 있지만 경험의 시간차는 '겠'과 '-을 것'의 구별에 근본적인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은 앞에서 논의 되었다. (15)a가 불가능한 이유는 '지구가 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자의 머리 속에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차균(1981: 103)에서는 발화순간의 상황판단이나 발화이전의 상황판단이냐를 가지고 (15)를 설명하여 성기철(1979)에 좌단하고 있지만 NI·GI와는 차이를 보인다. (15)b는 발화이전의 상황판단(성기철의 과거경험과 유사함)에 기초했기 때문에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든 예문 (12)에서 보듯이 '어제 문병간 것'을 기초로 했지만, 즉 발화이전의 상황판단이지만 '겠'이 쓰이고 있어 김차균(1981)의 주장도 따를 수 없음을 보게 된다.

- (16) a. 2000년 후에는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 b. ?2000년 후에는 지구가 멸망하겠다.

‘겠’을 대상성으로 파악하는 임홍빈(1980: 169)에서는 (16)b의 기묘성을 현실적 대상과 가상적 대상과의 거리가 너무 크거나 직접성을 결여하여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객관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겠’을 현장적 근거로 파악하는 안명철(1983: 72)에서는 먼 미래의 사건은 화자에게 이를 추정케 할 현장적 근거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겠’이 쓰이지 않고 ‘-을 것’이 쓰인다고 했다.

그러나 (16)a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된다기 보다는 신의 계시나 어떤 교리에 근거한 예언이라고 간주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이런 예언은 화자 혼자만이 갖고 있는 NI에 기초하여 얻은 짐작이 아니라 ‘신의 계시’나 ‘교리’ 같은 GI에 기초하여 내린 짐작이다. 따라서 G에 속하는 GI에 기초하여 내린 짐작은 진형인 ‘-을 것’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 (17) a. 그녀석 때문에 미치겠다.
 - b. *그녀석 때문에 미칠 것이다.²²⁾
- (18) a. 약을 먹었더니 이제는 좀 살겠다.
 - b. *약을 먹었더니 이제는 좀 살 것이다.

위의 ‘겠’은 이기용(1978: 62)에서 말하는 관용어적 용법의 ‘겠’인데 이런 경우는 다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임홍빈(1980: 164~5)에서 보면 ‘미치겠다’, ‘살겠다’, ‘알겠다’ 등은 화자 자신의 인지상태를 표현하는 동사다. 즉 ‘미치겠다’는 미칠 ‘지경이다’로 해석되고 ‘살겠다’는 ‘살만한 상태에 있다’로 해석되어 미래에 대한 추량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자 자신의 인지상태는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추량이 성립되지 않으며, 만약 추량이 성립한다면 ‘나’ 자신의 상태와 화자로서의 ‘나’의 시점과의 사이에 놓이는 시선의 거리 때문에 유래한다고 한다 (165).

한편 안명철(1983: 73~74)에서는 이때의 ‘겠’을 추정에 국한시키면

22) 진형태는 때때로 중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혼히 단형부정과 장형부정에서 논의되는 것과 동체의 사실이다. (17)b과 쓰인다고 가정하면 마치는 주체는 화자나 또는 제3자일 수 있으나, (17)a는 화자 혼자 뿐이다.

진형태의 중의성은 후일 다른 곳에서 별도로 논하였다.

설명이 용이하지 못해 관용적 용법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안명철은 '겠'을 발화현상의 근거 기술로 보고 (17)a와 (18)a에는 '미치다', '살다'가 참이 될 정도의 어떤 사태가 현상근거로 화자에게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했다.

비록 이런 경우의 '겠'에서 짐작의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겠'이 NI와 관련됨은 주목을 요한다. (17)a에서 화자를 미칠 지경으로 만든 근거자료는 청자는 모르는 NI이며, 마찬가지로 (18)a의 약을 먹은 사실도 청자의 머리속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 NI라 할 수 있다.

김차균(1981: 103~6)에서 제시된 '겠'의 부차적 의미인 '현장감'이나 '발화내용에 관심집중'도 NI에 기초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차균의 예를 보자.

(19) a. 왜 싸웠느냐?

b. 아무 이유 없이 날 때리지 않겠어요.

(20) a. 곧 김선생님이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b.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곧 영화가 시작되겠습니다.

즉 지난 일을 생생하게 연결시켜서 현재 일처럼 재생시키거나, 또는 곧 일어날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겠'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예문도 NI에 기초한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9)b에서 아무 이유 없이 날 때린 사건은 청자의 머리속에는 없는 것으로 우리의 정의대로 NI에 속하며, (20)a에서 '김선생의 노래차례'가 되는 근거자료는 사회자만 알고 있는, 청자의 머리속에는 없는 NI로 이해된다. 통상 노래순서는 사회자만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의 '겠'이 짐작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왜 이런 문장에서는 '-을 것'이 사용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그러나 LF와 SF의 화용론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관용적인 표현이나 또는 자주 쓰이는 말은 대체로 짧은형을 사용하고 있다.²³⁾ 쉬운 예로 속

23) Clark and Clark(1986: 95~6)에서는 Ziff(1949)를 인용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첫째, 가장 자주 쓰이는 날말은 한음절로 되어 있다. 둘째, 한 날말이 자주 쓰임에 따라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예, moving picture→movie,

담을 들 수 있다. 관용적 용법의 ‘겠’에 대한 문제는 후일로 미루겠다.

4. 4. 선택의 폐쇄성과 개방성

무엇을 짐작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과 불가능의 양극 사이의 어느 지점을 지칭함을 말한다. ‘비가 오겠다’는 ‘비가 온다’와 ‘안 온다’의 중간 어느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비가 올 가능성과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두 가능성 중에서 오직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와, 둘 중의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²⁴⁾ 전자를 선택의 폐쇄성이라 하고 후자를 개방성이라 할 수 있다. F-G의 이론에서 보면 폐쇄성은 작은 개념과 연관되는 F에, 개방성은 큰 개념과 연관되는 G에 대응된다. 표현형식의 질이에 각별히 주목하는 우리는 폐쇄성은 짧은형인 ‘겠’으로, 개방성은 긴형인 ‘-을 것’으로 표현됨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1) a.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다.
- b. *비가 오겠기도 하고 안 오겠기도 하다.

이것은 김차균(1981 : 84)에서 인용한 것인데 “「겠」은 확실히 일어날 가능성과 안 일어날 가능성 가운데서 어느 한쪽으로 판단(추리작용)이 기울어 졌을 때 말해지는 형태소이지만, 「을」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쓰인다”고 한다. 이런 설명은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선택의 폐쇄성과 개방성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21)a가 자연스런 문장인 반면 (21)b가 받아 들일 수 없는 문장이 되는 것은 ‘-을 것’의 개방성과 ‘겠’의 폐쇄성을 잘 말해 주고 있다.²⁵⁾

gasolin→gas 등).

관용적 표현의 질이가 짧은 것은 자주 쓰인다는 이유에서라고 생각되지 만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 24) 이것은 one of two 와 either one 의 차이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보증기간을 20,000 km 와 1년으로 제시하는데 어느 하나인 20,000 km 로 정했다면 이는 전자에 속하며 또 폐쇄성을 나타내지만, 둘 중에 어느 것이나 먼저 해당되는 것으로 하면 후자에 속하여 따라서 개방성을 나타내게 된다.
- 25) 이선경(1986 : 112~3)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겠’에서 언술행위자는 개념정의 영역(P/P')에서 P'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긍정적 가치 P 를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선택한다. ‘-을 것이’는 언술행위 주체자가 P/P'의

개방성과 폐쇄성은 '-을 것'과 '겠'의 본래적인 특성은 아닌 듯하다. 우리는 이것을 GI와 NI에서 연유되는 부차적인 의미로 보고자 한다. 앞에서 '-을 것'은 GI를 기초로 짐작할 때 쓰인다고 했다. GI의 정의를 살펴보면 화자나 청자는 결국 동일한 근거자료를 갖게 되는데(비록 가정한 경우라도), 그렇다고 양자의 짐작결과가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동일한 환자를 놓고 한 사람은 '죽겠다'고 판단을 내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살겠다'고 판단을 내림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는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판단근거를 갖고 있더라도 그 결과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21)a가 자연스런 문장이 됨은 '을 것'이 GI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겠'은 화자의 판단근거가 청자에게 없음을 가정했기 때문에 청자의 어떤 판단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 (21)b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다.

짧은형의 '겠'이 선택의 폐쇄성을, 긴형인 '-을 것'이 개방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F는 짧은형으로, G는 긴형으로 표현된다는 우리의 기본논리와 잘 부합되고 있다.

실현가능성 집합에서 P의 가치를 선택하지만 P'의 가능성을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개방성과 폐쇄성을 암시하고 있다.

- 26) 선택의 폐쇄성과 개방성의 문제는 여러 최소의 쌍에서도 발견된다. 명사화 접사사 {m}과 {ki}에 대한 심재기(1982 : 329~30)와 임홍빈(1974 : 95)에서의 논의는 좋은 예가 된다. 심재기의 설명을 보자.

- i) 소일거리로 바둑을 두기가 좋다.
- ii) 소일거리로 바둑을 둘이 좋다.

i에서는 바둑 이의에 장기, 고누, 곱프 등도 배제하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그 가운데 바둑이 있음을 '말하며 ii는 바둑만이 소일거리로 좋고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 화자의 의지가 내포되었다고 한다(심재기, 1982 : 33). 여기서 {m}은 짧은형, {ki}는 긴형으로 본다.

또다른 예를 보자.

- i. 학교간다 — 짧은형
- ii. 학교에 간다— 긴형

짧은형 i는 오직 '공부'를 위해 가는 것이며 또 주체는 '학생'으로 고정되는 선택의 폐쇄성을 보이지만, ii에서는 공부, 심부름, 방문 등 여러 가지가 산정되며, 주체도 학생, 일반인, 어린이 등의 다양성을 보이는 개방성을 나타낸다.

이처럼 선택의 폐쇄성과 개방성은 긴형, 짧은형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느껴진다.

$$\frac{\text{폐쇄성}}{\text{개방성}} = \frac{F}{G} = \frac{\text{짧은형}}{\text{긴형}}$$

V. 마무리

지금까지 언어표현의 길이에 주목하여 짧은형인 ‘겠’과 긴형인 ‘-을 것’을 살펴봤다. 설명의 기본논리로 언어표현과 지시내용(개념, 인지, 심리 등)은 iconic 관계임을 제시했으며, 또 지각심리학의 사물을 구별하는 방법인 모습·바탕 이론을 원용하여 ‘겠’은 모습에, ‘-을 것’은 바탕에 관련지어 설명했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비판없이 그대로 받아 들인다 해도 F-G의 특성 도표에서 보듯이 그들의 ‘겠’에 관한 성격은 우리의 ‘모습’의 태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며, ‘-을 것’의 성격도 ‘바탕’의 태두리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에는 반례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판단의 증거자료에 초점을 두고, 다른 일부에서는 판단결과(집작의 결과사건)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어 ‘겠’과 ‘-을 것’의 성격이 다양하게 주장되어 웃음을 지적했다.

언어표현 길이에 주된 관심을 보인 우리는 ‘겠’은 새정보에 기초하여 내린 집작을 나타내며, ‘-을 것’은 주어진 정보에 기초하여 내린 집작을 표현하고 있다고 봤다. 모습·바탕의 이론에 입각할 때 새정보는 모습에 해당되며, 주어진 정보는 바탕에 해당된다. 나아가 모습은 짧은형으로, 바탕은 긴형으로 나타난다는 iconic 관계를 고려할 때 ‘겠’이 새정보에 기초하고, ‘-을 것’이 주어진 정보에 기초함은 자연스럽게 설명되었다.

‘겠’과 ‘-을 것’을 관용적 용법과, 선택의 개방성 및 폐쇄성 문제는 부차적 의미로 파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새정보의 주어진 정보와의 판련성이 전혀 없지 않음을 지적했다.

최소쌍을 이루는 짧은형과 긴형의 문제는 ‘겠’과 ‘-을 것’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국어에 산재해 있는 많은 최소쌍들도 모습·바탕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영근, 남기심 공편(1986), 국어의 통사·의미론, 재판, 텁출판사.
- 김규철(1981), “단어형성규칙의 정밀화: 방해현상을 중심으로”, 언어 6-2. 한국언어.
- _____ (1983), “국어 ‘ㄹ’ 탈락현상에 대하여”, 육사논문집 제25집.
- 김진우(1984), “지각적 음운론 서설”, 언어와 언어학 제10집, 한국외국어대학.
- _____ (1985), 언어 : 그 이론과 응용. 텁출판사.
- 김차균(1981), “[을]과 [겠]의 의미”, 한글 제1973, 174호, 한글학회.
- 박남식(1980), “언어기술에 있어서의 거리의 변수”, 언어학 제 6집.
- 서정수(1978), “‘ㄹ 것’에 관하여”, 국어학 6.
- 성광수(1984), “국어의 추정적 표현”, 한글 184 호.
- 성기철(1976), “‘-겠’과 ‘-ㄹ 것이-’의 의미비교”, 김형규 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 _____ (1979), “경험과 추정”, 문법연구 4.
- 손호민(1978), “긴형과 짧은형”, 어학연구 14-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신창순(1975), “현대국어의 용언보조어간 ‘겠’의 의의와 용법”, 현대국어문법. 연구논문선(4), 계명대학.
- 심재기(1980), “명사화의 의미기능”, 한국문화 1.
- _____ (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 안명철(1983), 현대국어의 양상연구, 국어연구 제56호.
- 이기동 번역(1981), 문법이해론, 범한서적주식회사.
- 이기용(1977), “언어와 논리”, 어학 제 4집, 전북대학교.
- _____ (1978), “언어와 추정”, 국어학 6.
- 이남준(1981), “‘겠’과 ‘ㄹ 것’”, 광악어문연구 제 6집. 서울대 국문과.
- 이선경(1986), “서법과 언술행위적 한정작용 —‘겠’과 ‘-을 것이’를 중심으로—”, 한글 193 호.
- 이정민(1975), “언어행위에 있어서의 양상구조”, 현대국어문법, 연구논문선 (4), 계명대학.
- 임홍빈(1974), “명사화의 의미특성에 대하여”, 국어학 2.
- _____ (1976), “선어말 {-거-}와 대상성”, 국어학 3.
- _____ (1980), “{-겠-}과 대상성”, 한글 제170호, 한글학회.

- 장경희(1986), *현대국어의 양태법주연구*. 탑출판사.
- Ariel, Mira. 1985. The Discourse Functions of Given Information. *Theoretical Linguistics* 12-2/3. 99~113.
- Bolinger Dwight, 1985. The inherent iconism of intonation. in *Iconicity in Syntax*, ed. by John Haiman, 97~108.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orkin, Ann. 1973. To be and not to be. *CLS* 9. 44~56.
- Bybee, Joan. 1985. Diagrammatic iconicity in stem-inflection relations. in *Iconicity in Syntax*, ed. by John Haiman, 11~48.
- Chafe, Wallace. 1974. *Language and consciousness*. *Language* 50. 111~33.
- _____.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iv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Subject and Topic*. ed. C.Li. 25~55. New York; Academic Press.
- Clark, Herbert H. and Eve V. Clark. 1977. Language and thought, in *Psychology and Language*. New York: Harcourt and Jovanovich.
- Conrad, F.G. and Lance J. Rips. 1986. Conceptual combination and the given/new distinctio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5. 255~78.
- Cooper, Bill and John Ross. 1975. *World Order*. *CLS* 11. 53~111.
- Givón, Talmy. 1970.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80. The Binding Hierarchy and the Typology of Complements, *Studies in Language* 4.3. 333~77.
- _____. 1985. Iconicity, Isomorphism, and Non-arbitrary Coding in Syntax. *Iconicity in Syntax*, ed. by John Haiman, 187~220.
- Greenberg, Joseph H. 1966.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 in *Universals of Language*, 2nd ed., ed. by J. Greenberg, 73~113. Cambridge, MA: MIT Press.
- _____. 1985. Some iconic relationships among place, time, and discourse deixis. in *Iconicity and Syntax*, ed. by John Haiman, 271~89.
- Gregerson, Kenneth. 1987. Pharynx iconism as figure and ground. The thirteenth LACUS Forum 1986. 29~49. ed. by Ilah Fleming.

- Haiman, John. 1980. The Iconicity of Grammar: Isomorphism and Motivation. *Language* 56. 515~40.
- _____. 1983. Iconic and economic motivation. *Language* 59. 781~819.
- _____. 1985. Symmetry. in *Iconicity in Syntax*, ed. by John Haiman.
- _____. ed. 1985. *Iconicity in Syntax*.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Kim, Kong-On. 1977. Sound symbolism i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13. 67~75.
- Kim, Kyu-Cheol. (forthcoming). The Iconicity in Korean: with Special Attention to Long-Form and Short Form. to be presen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Texas at Aslington.
- Kirsner, Robert S. 1985. Iconicity and grammatical meaning. in *Iconicity in Syntax*, ed. by John Haiman, 149~70.
- Longacre, Robert E. 1977. A Discourse Manifesto. *Notes on Linguistics* 4. 17~29.
- Prince, Ellen F. 1979. On the Given-New Distinction. *CLS* 5. 267~78.
- Ross, John R. 1978. Brevity is the soul of everything(MS).
- _____. 1982. The Sound of meaning.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lected Papers from SICOL-1981*. 275~290. ed. by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Korea: Hanshin Publishing Company.
- Sohn, Ho-Min. 1986. Power and Solidarity in the Korean Language. in *Linguistic Expeditions*, ed. by Ho-Min Sohn, 389~410. Seoul, Korea: Hanshin Publishing Company.
- Tanz, Christine. 1971. Sound symbolism in words relating to proximity. *Language and Speech* 14. 266~76.
- Wallace, Stephen. 1982. Figure and ground. in *Tense-Aspect: between Semantics and Pragmatics*, ed. by Paul J. Hopper,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